

'25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12	12.17	회의실	10/12	4	1	15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양우·반수경·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장은백·정인영·정희(10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7	3	0	0	10	1	1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1	0	0	1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제주항공, 광주 도서관 붕괴 등 사회적 참사에 계속해서 관심을 바람	<뉴스데스크> 광주도서관 붕괴 사고 “복합적인 기술 결함 탓”(12.22), 참사 1년이 지났지만..“진상규명하라”(12.27), 풀지 못한 의혹들..갈 길 먼 진상규명(12.29), ‘용접 불량’ 사실로 드러나 수사 속도(12.31), 무너진 도서관..‘공법 신기술은 0점’(1.7), 구조 안전성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1.12), <뉴스투데이> “3단계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 갖췄다”(12.31) 등 방송 조치	’25.12
"	나주 인공태양 등 에너지 관련 관심을 두길 바람	<뉴스데스크> ‘석유화학 위기’ 일본·독일은 어떻게 돌파했나(12.19),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올해 최우수 시책(12.20), 장밋빛 청사진 속 ‘해묵은 과제’(1.9) 등 방송 조치	"
"	지하철 공사 도로 복구 관련해 공공증 해소를 위한 보도 바람	<뉴스투데이> ‘시장직’ 걸었던 2호선 지상 도로 개방(12.23), 정부가 주목한 신안형 이익공유제(12.30) 등 방송 조치	"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 등 관심 필요	<뉴스데스크> 이번엔 진짜로 통합하나?(1.1), 행정통합 속도전..내일 통합추진단 출범(1.4), 행정통합 ‘후폭풍’..지방선거판 흔들(1.10), <뉴스투데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기대반, 우려반(1.5), 지방 소멸 막을까 320만 거대 지자체 ‘첫발’(1.5), ‘슬세권’에 만원짜리 아파트..관리비도 반값(1.6) 속도전에 묻힌 주민 의견(1.7), 농촌 경제의 대안, 도농상생사업(1.8) 등 방송 조치	"
"	불법 현수막 철거 관련,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정치인에게도 법의 공평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심 필요	<뉴스투데이> 신정훈 현수막 훼손, 주철현 의원 보좌관 개입(12.31), 단속해야 할 분들이 앞장서서..(1.12), <뉴스데스크> 현직 시장까지 가담..관행 된 위반(1.8) 등 방송 조치	"

"	<시사용광로>, 도표나 정리된 목록 형태로 제시 필요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민주주의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다뤄 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전두환 기념사업 전면 금지’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12.30), <뉴스투데이> 5.18 암매장 추정지 추가 발견·광주시 발굴 착수(1.8), 5.18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12.25, 28)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광주 음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광주지역의 소식이 다른 지역방송에서 방영되길 바람	광주MBC 제작 방송물은 지역 MBC 협약을 통해 상시 공유 및 방송 시행 중	"
"	5·18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 방송 바람	5.18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12.25, 28) 등 방송 조치	"
"	<캠페인 지역인재는 지역에서 육성하자> 지역인재가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 필요	<지역인재 캠페인> 대학별 사례를 소개한 인재 걱정 없는 광주 만들기 편 방송 조치(1월)	"
자체심의규정	<정오의 희망곡> 수능 관련 잘못된 내용 전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반	편성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조치 등 방송 조치	"
합계		11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제주항공, 광주 도서관 붕괴 등 사회적 참사에 계속해서 관심을 바람	사회적 참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취재 보도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겠음	○		
"	나주 인공태양 등 에너지 관련 관심을 두길 바람	전남 에너지 정책과 산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보도해나가겠음	○		
"	지하철 공사 도로 복구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보도 바람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나가겠음	○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 등 관심 필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재해서 보도해나가겠음	○		
"	불법 현수막 철거 관련,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정치인에게도 법의 공평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심 필요	지방선거 앞두고 혼탁해지는 선거운동 관련해 공정하고 정확한 비판 보도로 선거운동 정화에 힘쓰겠음	○		
"	<시사용광로>, 도표나 정리된 목록 형태로 제시 필요	생방송 특성상 준비한 자료가 못나갈 때도 있는 애로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자료화면과 도표를 마련해 생방송에 임하겠음	○		
"	민주주의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5.18 보도에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다뤄주길 바람	있어서 광주MBC가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보도를 해오고 있음.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겠음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광주 음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광주지역의 소식이 다른 지역방송에서 방영되길 바람	광주를 소재로 한 다양한 방송물을 지역 MBC 계열사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	5·18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 방송 바람	5.18 기획보도나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평소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	<캠페인 지역인재는 지역에서 육성하자> 지역인재가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 필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하겠음	○		
자체심의규정	<정오의 희망곡> 수능 관련 잘못된 내용 전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유의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12월)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박양우 · 반수경 · 설제학 · 양지현 · 유한별 · 이경주 · 이미진 · 장은백 · 정인영 · 정희 위원(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날씨가 추워졌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붐과 소식을 서울에서 듣고 안타까웠다.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25 대한민국 김치대전>에는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 행사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길 바란다. 사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위원장님, 위원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있어 광주MBC는 올 한해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2025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잘 개최하였고 성과를 이뤘다.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잘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길 바란다.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주요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0일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16개 계열사 공동제작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 11월22일 윤이상 서거 30주년 특집 <윤이상, 광주, 김대중>, 11월22일 <2025 대한민국 김치대전> 2시간 생방송, 12월15일 보성 별교꼬막축제 <가요베스트> 등을 방송했다. 12월13일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를 제작한 김귀빈 아나운서는 한국아나운서대상 지역문화 발전상을 받았고, 디지털콘텐츠 부문에서는 노벨평화상 25주년 기념 <DJ의 육성 회고> 5편을 업로드했다. 중 계획으로 프로그램별 송년 특집을 준비 중이다. 오늘은 <빛나는 나의 도시> LTE 현장에서는 5.18민주광장의 크리스마스를 소개한다. 12월19일 '신지동철'에서는 신정훈 의원 편을 녹화한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5.18 다큐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의 수상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올해의 민주언론상 우수상과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방송기획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균형발전 공익캠페인 방송을 시작했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입니다"를 주제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촉구, 수도권 집중 견제, 지방시대위원회 활성화를 요구하는 내용 등으로 진행한다. 지역인재 공익캠페인도 방송을 시작했는데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등 8개 대학이 참여해 지역인재는 지역에서 육성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시사용광로>에서는 11월27일 12·3 비상계엄 1년, 5·18이 남긴 과제는?, 12월4일 빛의 혁명 1년 후, 지금 우리 사회는?, 12월11일 제주항공 참사 1년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한시계약직 기자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6년 1년간 일할 계약직 기자 채용 준비 중이다. 출산 휴직, 안식월 휴직, 노동조합 파견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신년 기획 특집방송을 준비 중인데, <그 지역이 사는 법>을 가제로 기획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대한민국의 지역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전망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군공항 이전과 행정통합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 박양우 위원장 : -<뉴스투데이> 11월 28일에 방영된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 소멸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이슈 기사로서 눈길을 끌었다. 지역방송이 재정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사와 관련해 인터뷰 대상 선정이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립을 통한 정부 광고 수수료 수입의 직접 배분과 지상파 방송광고와 지역방송 광고 결합 판매 방안 등을 제시한 것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부 광고를 계속해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립 등이 바람직하며 또 이 방안이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정부 지원 부분만 제기하고 지역방송 나름대로 재원 확보 노력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지역방송들의 책임회피용 기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

므로 이 점을 유념해주면 좋겠다.

-<빛나는 나의 도시>는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문화와 삶의 소식들을 전해줌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행복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12월 4일 방송에서 소개된 '당신의 사진첩'이나 화순의 염소 치즈 빵을 소개한 것 모두 흥미로웠다.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출연하신 두 분 모두 입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진행 또한 매끄러워서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었다. '택솔랭 가이드'를 통해 부산의 돼지국밥을 소개한 것이나, 충북 청주 전통시장의 봉어빵 소개를 통해 다른 지역 맛집 정보를 얻는 것도 매우 유익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지역 문화방송들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광주의 맛집 등도 다른 지역에서 방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음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광주지역의 소식들이 다른 지역방송에서 방영되는 기회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 반수경 위원 : -<탐나는 TV>는 진행되는 세트 구성이 가볍고 안정감이 없어 보이고, 특히 파란색 및 연보라색 칼라가 계절에 대비해서 너무 추운 느낌을 받았다. 좀 더 따뜻한 분위기가 아쉽다. 방송 시간이 오전 8시 30분으로 주말 아침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 괴담 내용으로 방송하는 것은 주제 선정에 좀 더 신경써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한여름의 더위를 가시게 하는 오싹한 괴담하고는 다른 이야기일 것 같다. 도마 위의 TV <알바로 바캉스> 프로그램은 많은 시청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었다. 예능이지만 봉사기구와 연계하고 글로벌한 알바스에 대한 보상 등 기획이 좋았다. 다만 방송 중에서도 말이 나왔듯이 적은 양의 노동 대비 예능과 보상이 너무 과한 느낌은 지양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된다. 시청자들이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했다.
- 설제학 위원 : -11월 27일에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현시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한 프로그램이었다. 5·18은 이미 역사 속 사건이 되었지만, 그 의미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왜곡과 편향을 막는 노력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패널로 나오신 김꽃비님께서 언급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5·18에 대해서 청년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매우 신선한 내용이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12·3 비상계엄과 5·18이 결코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5·18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방송해주길 바란다.
- 양지현 위원 : -<시사용광로> 제주항공 참사 1주기 편을 시청했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다룬 이번 방송을 통해 자칫 잊고 지냈던 참사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맞물려, 아직도 이 지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시사용광로>는 서로의 입장을 격하게 주장하기보다, 차분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 덕분에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시청자에게 사안을 균형 있게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느꼈다. 사회적인 사고와 참사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026년에도 계속해서 깊이 있는 보도를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돌아보며,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던 생각이 들었다. <빛나는 나의 도시>는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의 공간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어 인상 깊었다. 때로는 무거운 이야기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자칫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알찬 콘텐츠로 함께할 2026년을 기대하겠다.
- 유한별 위원 : -<시사용광로>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나주에 뜰까' 편을 시청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 에너지원인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구현하기 위한 대형 장치 및 실험 인프라를 말하는데 핵융합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이고 무한에 가까운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다. 우리나라는 현재 핵융합의 실용화와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시설 구축이 절실한 시점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있고 에너지밸리가 조성된 나주가 가장 실현이 가능한 후보지라고 보인다. 이를 통해 직간접 고용 창출, 지역 청년들의 과학 기술 분야 진출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니 이는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프로젝트다.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나주를 응원한다.

이에 대해 광주MBC가 계속해서 관심을 두길 바라며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

-최근 지하철 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대표도서관 사고와 관련하여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의 안전성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안 또한 높아지고 있어 공사가 계속 늦어지는 원인, 12월 22일까지로 약속한 공사 마무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부실 공사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보도를 하면 좋겠다.

- 이경주 위원 -광주MBC가 '지역인재는 지역에서 육성하자'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공익캠페인을 추진하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 혁신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이 캠페인의 성공적인 확산과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 산업 및 인재 육성 현장의 관점을 담아 제언을 드린다. 단순히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캠페인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언한다. 또한,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즉 AI, 자동차, 문화콘텐츠 등에서 지역인재가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방안으로 '지역 산업-인재-대학'의 연결고리 조명하여 지역인재가 곧 지역 산업의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를 조명하고,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투자하여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광주MBC의 공익캠페인은 지역인재 선순환 구조를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밝은 미래를 구체화하여, 지역 사회 전체의 공감대와 참여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신년 기획 특집방송 <그 지역이 사는 법> 특집은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역이 앞으로 살아가갈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특집방송이 될 거로 생각한다. 특히 인공지능, 에너지 대전환, 군공항 이전, 그리고 행정통합이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는 우리 지역의 향후 50년을 결정할 전략적 과제라 생각한다. 본 특집은 이러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 생존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 연대와 실행력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관련 광주는 대한민국 AI 산업의 거점으로서 이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AI가 지역 산업 전반에 혁신 동력을 제공하고 광주·전남의 새로운 경제 지형을 창출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AI 기술을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지역 특화 산업에 실질적으로 융합하고, AI 인재의 지역 정착 및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AI 기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군 공항 이전과 행정통합 관련 지역의 미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적 구조 개편과 거버넌스 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광주 구도심의 미래형 첨단 복합 도시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확보된 부지 활용 계획에 지역 AI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지역 이기주의의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메가시티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AI,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된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남부권의 성장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광주와 전남이 당면한 과제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AI, 에너지, 교통,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시민의 혁신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광주MBC 신년 기획이 이러한 연대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미래를 위한 실행력을 촉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 이미진 부위원장 : -광주MBC 단독 불법 현수막 싹 걷는다라는 보도를 보니 광주 5개 구청장이 회의를 열어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도 예외 없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광주 5개 자치구가 처음으로 강력 대응을 약속한 것이다. 일반인들의 불법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실에 비해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관점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에게 5개 자치구가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다행히 광산구의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치인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부디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도 법의 공평한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광주MBC가 5개 자치구의 이러한 다짐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보는 시민의 눈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 장은백 위원 : -2025년 연말을 맞이해서 광주MBC 뉴스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독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젊은 기자들의 역투가 역시 눈에 띈다. 단독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매일 뉴스를 쳐내야 하는 바쁜 일과 속에서 큰 관심과 노력 없이는 단독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다. 광주MBC 보도를 지탱하고 있는 젊은 기자들의 파이팅 넘치는 노력 항상 응원한다. 2026년을 맞이해서 보도본부에서 많은 인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보도본부 인원들이 모두 심기일전해주시고, 새로 오시는 계약직 기자 두 분과도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광주MBC가 지역뉴스를 선도하는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
- 정인영 위원 : -<시사용광로>는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아 자칫 잊힐 수 있는 지역의 아픔을 다시 기록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특히 광주·목포·여수 3사가 공동 기획하여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남 전역의 피해자 상황을 입체적으로 담아낸 점은 사안의 무게감을 더하고 방송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전달하는데 비중이 실리다 보니, 보상 지연의 구조적 원인이나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졌다. 보상 절차의 진행 단계나 쟁점을 인포그래픽 등으로 시각화해 설명했다면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비판에 그치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입법 과제까지 함께 제시했다면 보다 건설적인 마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2월4일 방송은 '빛의 혁명' 1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가 겪은 변화와 현재의 과제를 시의적절하게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언론인과 정치학자를 패널로 섭외해 지난 1년의 흐름을 저널리즘적 시각과 학술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정리한 점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었다. 전문가 대담 위주로 진행되면서 실제 혁명의 주체였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날의 다짐이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면 더 큰 울림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논의가 중앙 정치와 거대 담론에 집중되다 보니, 이 사건이 광주 지역 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역적 분석은 다소 약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화를 진단하는 데서 나아가, 향후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표나 정리된 목록 형태로 제시했다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정희 위원 : -11월22일 <2025 대한민국 김치대전> 김치의 날에 맞춰 광주 5.18민주광장이라는 상징적 장소에서 1,122명이 참여하여 1만 포기의 김장을 했다.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시민참여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확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12월4일 <빛의 혁명 1년 후, 지금 우리 사회는?>에서는 빛의 혁명 이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대담 형식으로 제작했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 등을 되짚어 본 점이 돋보였고, 광주지역과 전국적 맥락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다뤄주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의견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프로그램 관련 개선 계도가 제시돼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특라이브> 11월13일 방송에서 수능 전날 방송에서 리포터가 1994년 수능이 도입됐고 400점 만점이라고 하는 등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지적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방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시청취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주길 바란다.
- 김낙곤 사장 :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 준수 이전에 시청자를 위한 정확하고 바른 방송이 필요하다. 계도 사항을 명심하여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란다. 내년에는 소망하는 일 이루길 기원한다. 이것으로 1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다음 달에 뵙겠다.

끝.